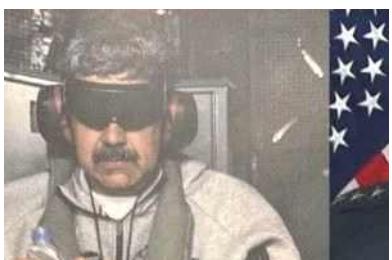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의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미군 마두로 체포… 복음주의 지도자들 기도 촉구



미국 군은 1월 3일 토요일 오전(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대규모 타격’을 감행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봉인 해제된 기소장을 통해 마두로가 미국 본토로 이송돼 뉴욕에서 광범위한 형사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두로는 나르코 테러리즘 공모, 코카인 미국 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 장비 소지 공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미 법무부는 해당 범죄들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행위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해상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의 97%를 차단했고, 이 가운데 상당량이 베네수엘라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하고 적절하며 신중한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마두로를 “불법적인 대통령이자 미국 사법 정의를 피해 도주 중이던 인물”이라며, “마두로는 매우 관대한 제안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고, 그 선택의 결과가 이번 사태”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은 독재 정권의 종식을 환영하면서도 무력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은 미국의 작전을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마두로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광장과 간선도로는 독재 정권의 종말을 축하하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미국 마이애미와 스페인 마드리드 등 해외에 거주하는 베네수엘라 이주민들도 광장에 모여 밤새 축제를 벌였다며 AP와 로이터 등은 전했다.

베네수엘라 국내와 해외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기도와 절제를 촉구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에 거주 중인 H2D 재단 대표 호세 리베로는 “현재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며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태가 전개되는 동안 베네수엘라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했다.

이웃 국가 콜롬비아의 콜롬비아복음주의연맹도 모든 교회와 신자들에게 연합 기도를 촉구하며 “하나님께서 베네수엘라를 다스리시고 자유와 평화, 정의와 회복을 허락하시기를 구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예수를 위한 행진’ 창립자 아리스토 텔레스 로페스는 마두로의 체포를 “수년간 고통받아 온 베네수엘라를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자 정의의 실현”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 시기를 견뎌내기 위해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기도24·365본부 종합).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의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열왕기상 8:59-60)

하나님, 강한 압제와 공포정치로 베네수엘라를 통치한 마두로가 체포되어 환영과 비판을 동시에 받으며 나라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이 땅을 주께 익탁드립니다. 이에 주리고 목마른 영혼들이 이때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고 베네수엘라에 참된 자유와 공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주야로 여호와를 찾는 자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시는 선하신 주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며 주님 외에는 다는 신이 없는 줄 알아 구원의 복음을 세상 만민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러시아군, 중증 환자·미성년 병사까지 최전방·자살작전 투입

러시아군 지휘부가 중증 환자와 미성년 병사까지 최전방과 자살 작전에 내몰며 뇌물과 가혹행위를 일삼아 온 실태가 일부 민원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2일 뉴욕타임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문서에 따르면, 일부 러시아군 지휘관들은 병사들에게 전투 위험 지역 투입을 피하려면 뇌물을 내라고 요구했으며, 비위 사실을 아는 병사들을 고의로 자살 공격 작전에 투입하거나 사살하도록 명령한 사례도 드러났다. 문서에는 암 4기, 뇌전증, 중증 외상, 정신질환 등 정상적인 복무가 불가능한 병사들까지 최전방에 배치됐다는 증언이 담겼다. 또 병사들을 수갑을 채운 채 나무에 묶어 방치하거나 음식과 물을 제공하지 않는 가혹행위도 반복됐다. 한 18세 병사는 지휘관의 뇌물 요구에 응한 뒤 자살 공격 작전에 투입됐다면 가족에게 영상을 남긴 채 실종됐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사야 59:2,16)

하나님, 중증 환자와 미성년까지 전쟁의 한복판에 내몰며 갖은 만행을 일삼을 러시아군을 엄히 꾸짖어 주시고 자살 작전과 가혹행위에 노출된 최전방의 병사들을 지켜주십시오. 주여, 스스로 죄의 길에 빠져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을 뿐 아니라 마음에 품은 탐심과 악독으로 인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러시아의 황폐함을 돌봐주십시오. 러시아에 완전한 중재자 이시요,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사 그 땅의 영혼들이 십자가의 공의 앞으로 나아와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소서.

▲ 나이지리아, 2025년 기독교인 순교 3,000-7,000명

나이지리아는 2025년 한 해 동안 3,000-7,000명의 기독교인이 순교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희생자를 합친 수보다 많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일 보도했다. 현지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와 무장 범죄 집단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미 심각한 사망자 수가 올해 안에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찰 병력을 두 배로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동일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현장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란을 낳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보고서는 기독교 공동체가 조직적이고 표적화된 공격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릴리즈인터내셔널은 연례 박해 보고서에서 나이지리아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지 파트너는 박해 증가의 원인으로 기독교와 서구 영향력에 대한 이념적 적대감, 지하드 조직의 통제되지 않은 확산, 정부의 무대응과 부적절한 안보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로마서 8:18,27)

하나님, 작년 나이지리아 순교자의 수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희생자를 합친 수보다 많다는 소식에 여러 원인과 진단에 앞서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께 몸 된 교회를 의탁 드립니다.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더욱 사로잡혀 전진하는 나이지리아 교회 되게 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게 하소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께로 인도하사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들으리라”
부룬디 기독교계 “콩고 난민 88,000명 초과”… 인도적 위기 경고**



최근 몇 주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동부에서 M23 반군의 공세가 격화되면서 수만 명의 민간인이 국경을 넘어 부룬디로 피신했다. 국경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자 부룬디 교회들은 긴급한 국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12월 5일 이후 남카부주에서 이어진 반군의 공격으로 8만 8천 명 이상이 부룬디로 유입됐다. 과밀한 난민캠프와 식량·식수 부족, 질병 확산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위기는 12월 10일 반군이 전략적 항구도시 우비라를 점령하면서 더욱 악화됐다. 미국 국무부는 이를 최근 체결된 워싱턴 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

부룬디복음주의연맹 지도부는 이를 단순한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이상의 문제로 보고 있다. 에드먼드 가키자 사무총장은 “이번 난민 유입은 도덕적·영적 위기”라며 “‘그리스도의 한 몸 신학’에 근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는 두려움과 피로를 안고 도착하는 많은 가정들의 첫 접촉 지점이 되고 있다”며 교회들이 식사와 담요,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요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 12월 초 미국 중재로 체결된 워싱턴 협정은 반군의 우비라 점령 이후 이 행이 불안정해졌으며,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협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현장에서는 말라리아와 콜레라,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이들이 취약하며, 가족들이 충격과 트라우마를 안고 도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장 평가에 따르면, 난민의 약 83%(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가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말라리아와 콜레라,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난민의 상당수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18일 부룬디 정부는 비상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4개월간 9만 명의 난민 지원을 위해 3,320만 달러 규모의 국제 긴급 모금을 요청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일부 접수 지역에서 말라리아 양성률이 42%라고 밝혔다. 가키자는 전 세계 교회를 향해 기도와 연대,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출애굽기 22:21-23)

하나님, 민주콩고의 내전을 피해 브룬디로 유입된 난민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달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난민들을 보살펴주시길 부르짖어 구합니다. 특별히 살길을 찾아 브룬디를 찾는 많은 가정들의 첫 접촉점이 되는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순종케 하옵소서. 나그네와 과부, 고아를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열방의 교회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며 연합하는 섬김을 통해 수많은 예수 생명을 넣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우간다, 대선 앞두고 야권 탄압 심각… 보안군 고문·자의적 체포 주장

동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정부의 조직적인 탄압에 직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연합 뉴스가 보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5일 성명을 통해 우간다 보안군이 야권 세력을 위협하기 위해 고문과 자의적 체포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7선에 도전하는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의 가장 유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가수 출신 정치인 보비 와인이 이끄는 국민통합플랫폼(NUP) 지지자들을 군과 경찰이 구타하고 최루탄을 사용해 진압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몇 달간 고의적 재산 훼손과 폭력 선동 등의 혐의로 체포된 NUP 지지자 400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지난해 11월 28일 집회 진압 과정에서는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NUP 지지자 1명이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장기 집권 지도자로, 1986년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1996년 첫 직선제 대통령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여섯 차례 선거에서 연속 승리했다. 그는 2005년 대통령 3선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2017년에는 대통령 연령 제한을 없애는 등 헌법을 개정해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찌어다(이사야 50:10)

하나님,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장기 독재정권을 유지하려는 무세베니 대통령 아래 억압받는 우간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로 여호와를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무력까지 동원하는 우간다 정권을 꾸짖으시고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자 자신들의 교만함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혼란을 겪는 그 땅의 교회가 흑암과도 같은 상황에서도 더욱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기도로 일어나게 하소서.

▲ 캐나다 혐오표현법 개정 논란… 성경 인용도 형사처벌 우려

캐나다에서 추진 중인 혐오표현법 개정안이 성경 인용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기독교계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6일 보도했다. 캐나다 정부가 추진하는 ‘혐오 관련 표현 법안’ 개정안은 종교 문헌에 근거한 발언을 선의로 했을 경우 처벌을 면제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국은 이 개정안이 반유대주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기독교계에서는 성경 인용 설교나 신앙 표현이 혐오 발언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복음주의 매체 가스펠 코얼리션 캐나다의 폴 카터는 해당 법안이 주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도 혐오범죄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 더 큰 위험이라며, 교회와 목회자들이 개인 고발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구권에서는 혐오표현법을 둘러싼 종교 자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핀란드의 패이비 레세넨 전 장관이 성경 로마서를 인용한 발언으로 7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사례도 거론됐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자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호세아 14:1-2)

하나님, 캐나다에서 추진 중인 개정안이 반유대주의를 막기 위한 명목이라고 설명하지만 성경 인용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아 기독교 박해가 우려되는 이 나라를 다스려 주소서. 혐오를 앞세워 진리를 전하는 일을 막아서는 일에 정부가 도구가 되지 않도록 위정자들의 마음에 불의를 제거하시고 주의 선함으로 덮어 주옵소서. 캐나다뿐 아니라 서구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흐름에 몸 된 교회가 깨어 사탄의 간계를 파하는 기도로 영적 전쟁을 싸우게 하소서.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든 예수교회를 통해 캐나다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만한 자들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르완다 대통령, 교회 1만개 폐쇄 이후 “교회는 사기꾼 소굴”… 경멸과 혐오 심각**



르완다 정부가 ‘국가 질서·발전’을 명분으로 2018년 교회 규제법을 강력 집행해 수천 개의 복음주의 교회를 폐쇄한 가운데, 폴 카가메 대통령은 교회가 국가 생존과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기꾼들의 소굴이라고 비판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카가메 대통령은 해당 법에 따른 종교기관 폐쇄 결정을 옹호하며 이 같은 발언을 했으며, 법 시행 이후 폐쇄된 교회는 1만 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설교자들에게 신학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모든 교회가 보건·안전 기준과 재정 보고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교 건물은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 시설을 갖춰야 하며, 연간 활동 계획은 국가 가치와 일치해야 한다.

수도 키갈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온 복음주의 교회 그레이스 룸 미니스트리 역시 이러한 규제의 대상이 됐다. 이 교회는 키갈리의 BK경기장에서 주 3회 대규모 군중을 모아왔으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5월 폐쇄됐다. 당국은 이 교회가 승인되지 않은 복음주의 활동을 벌였고, 연례 재정 및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가메 대통령은 만약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면 단 하나의 교회도 다시 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르완다의 생존과 발전과 관련해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카가메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모든 개발 과제, 전쟁, 국가의 생존 문제에서 교회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며 “이들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가? 많은 경우 그들은 단순히 도둑질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모든 교회 현금을 등록 계좌로 관리하고 국가 가치에 부합하는 연간 계획 제출을 의무화했다. 지난해 두 개의 지교회가 폐쇄된 샘 루기라 목사는 이런 규정이 주로 새로 설립된 복음주의 교회에 영향을 미치며, 정부는 폐쇄보다 요건 충족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교회는 모든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여전히 문을 닫고 있다.

키갈리의 한 목회자는 “대통령의 교회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과 혐오가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 분석가 루이 기티니와는 집권당이 대중적 영향력을 키우는 모든 조직을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 역시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잠언 1:22-23)

하나님, 교회를 향한 제재와 노골적인 경멸로 스스로 어리석음과 거만함을 드러낸 르완다 대통령의 언행을 꾸짖어 주소서. 하나님을 멸시하며 높아진 교만한 그의 마음에 주님의 책망이 들려지게 하셔서 이 땅의 참된 주권자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환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교회가 인내하며 진리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어둡고 흔미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져 미련한 자들이 돌이켜 생명을 얻고 주를 찬송하는 예수교회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이란 전역 반정부 시위 격화… 최소 35명 사망

이란 전역에서 경제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면서 최소 3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AP통신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 인권 단체 HRANA(인권운동가통신)는 시위로 현재까지 최소 35명이 사망했으며, 그 가운데는 시위 참가자 29명과 어린이 4명, 이란 보안군 2명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사망자의 대다수가 민간인이라는 점에서 당국의 강경 진압이 시위대에 집중됐음을 보여준다. 특히 어린이 4명이 포함된 것은 무차별적 진압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지적했다. 단체는 시위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1,200명 이상이 체포돼 구금됐으며, 시위가 이란 전체 31개 주 가운데 27개 주, 약 250개 지역으로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란 당국은 시위대의 폭력성을 강조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다. 시위는 경제 위기가 촉발점이 되었지만, 그 근저에는 장기간 누적된 정치적 억압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고 아티클19(ARTICLE 19)가 분석했다. 이란 정권은 최근 몇 년간 전국 인터넷 차단 및 주요 소셜 미디어를 차단했으며, 정부 비판을 범죄화하는 제한적 법률을 통과시켰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잠언 13:1,6)

하나님, 이란 전역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무차별적이고 과도한 진압으로 인해 어린이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에 애통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체제 유지를 위해 강한 통제와 무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거만함을 꾸짖어 주시고, 단순한 경제 개혁을 넘어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는 백성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선 이란 교회를 통해 더욱 십자가 복음을 흥旺盛케 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따르는 지혜로운 나라 되게 하소서.

▲ 영국 교회, ‘전국 기도와 예배의 날’ 개최… 한 달간 24시간 기도 철야 돌입

영국 전역의 기독교인들이 2026년을 영적 간구과 일치, 그리고 국가의 방향을 위한 기도로 시작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6일 보도했다. ‘전국 기도와 예배의 날(NDOPW)’은 1월 5일부터 2월 5일까지 한 달간 교파와 지역, 전통을 넘어 교회와 개인들이 24시간 내내 기도하는 전국 기도 철야 집회를 통해 교회의 연합과 사회 전반의 회복을 촉구했다. 또한 전국적 규모의 영적 동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매일 온라인 기도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국가 생활, 글로벌 이슈에 초점을 맞춘 중보 네트워크와 연결된다. ‘전국 기도와 예배의 날’ 창립자 조나단 올로예데 목사는 “이번 철야 기간은 교회 간 영적 깊이와 협력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 운동은 교회와 기도 네트워크, 교단, 개인 중보자 등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의도적으로 기도로 연결되는 데 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기도와 예배의 날’은 2006년 웰블리 스튜디움에서 수천 명이 모인 첫 대규모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기도 운동을 꾸준히 조직해 왔다.

예루살렘이며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자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이사야 62:6-7)

하나님, 영국 전역의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의 회복과 연합을 위하여 한 달간 주야로 쉬지 않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갈망하는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과 은혜를 그들의 심령에 부으사 이 기도가 단순한 행사를 넘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양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의와 진리를 따라 행하며 복음을 기도의 터 위에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거룩한 영국 땅 되게 하옵소서.